

7/11(월) 잠언 6-9장 지혜, 새로운 삶의 양식

“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<솔로몬>의 잠언이라(1:1)”

다윗이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진 왕이었다면,
본격적으로 왕국을 다스리고 치리한 이는 솔로몬이었습니다.
때문에 유대공동체는 다윗에게서는 자신의 <존재 적법성>을(삼하7:16),
솔로몬에게서는 생존과 부강을 위한 <지혜>를 찾았습니다.

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(왕상3:9, 대하1:10).
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부와 귀, 강력한 왕권의 실체였습니다.
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례와 법도를 준수했을 때,
조상들이 누렸던 참 평화와 부강함을 기억했습니다.

“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
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
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”
(6:22-23)

새로운 공동체에게 <하나님의 지혜>는 실체였습니다.
단순한 생존을 넘어 온전한 건강과 평화의 비결이었습니다.
공동체는 새로운 시대, 미래를 위한 삶의 양식으로
<하나님의 지혜>를 선택하였습니다.

<하나님의 지혜>가 실체이며 실체임을 믿습니까?

- 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까? (대상29:12)
- ②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잠언 6-9장

잠언이 전하는 솔로몬의 지혜

내향적 지혜 인간 실존의 문제, 신앙적 지혜, 악/의인의 고난 문제 등.
외향적 지혜 타인과의 관계, 사회적/국가적 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혜, 통치적 행정능력,
재판, 건축 및 장인 기술, 온전한 행위, 모략 영리함, 백과사전적 지식과 정보,
장수와 물질의 부요함 (두란노 HOW)